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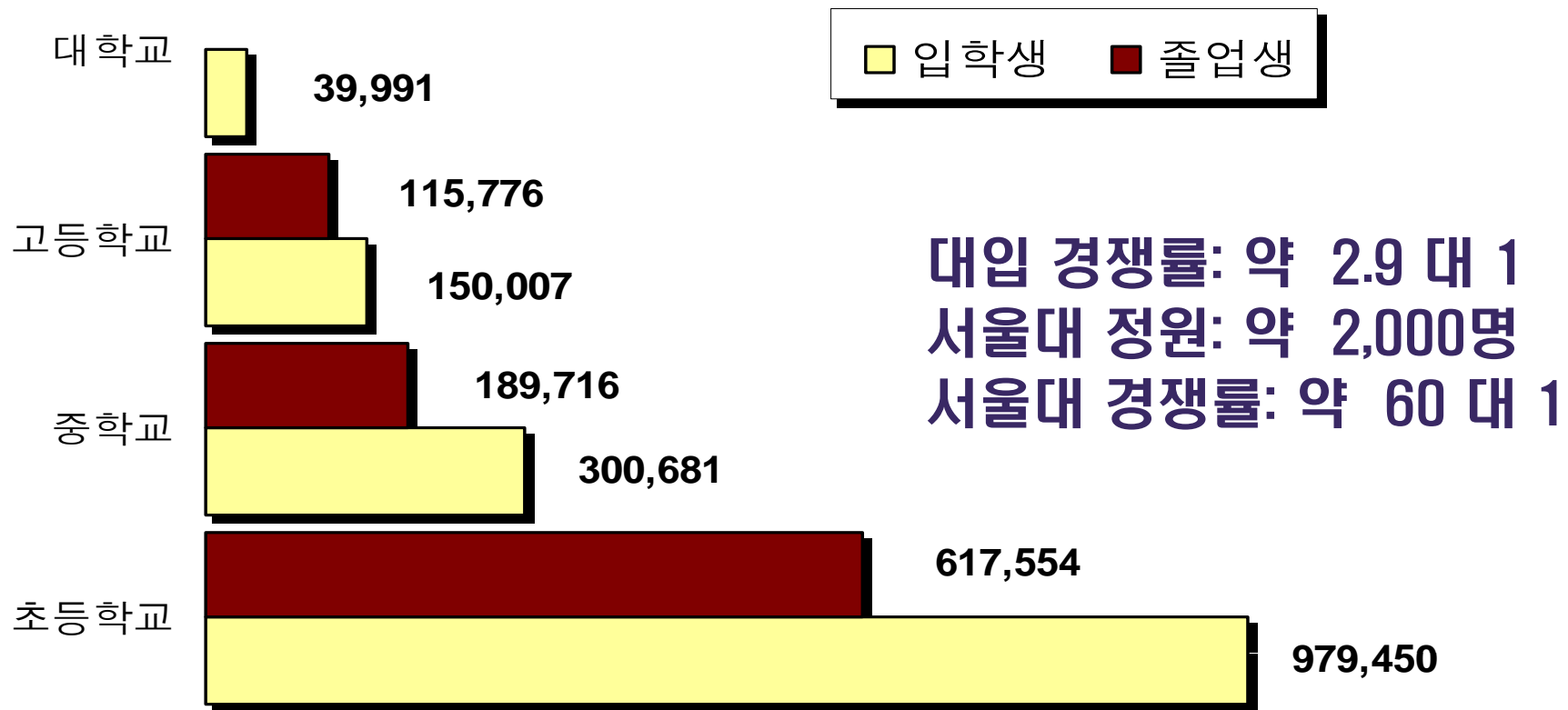
그래프로 본 교육불평등

[보강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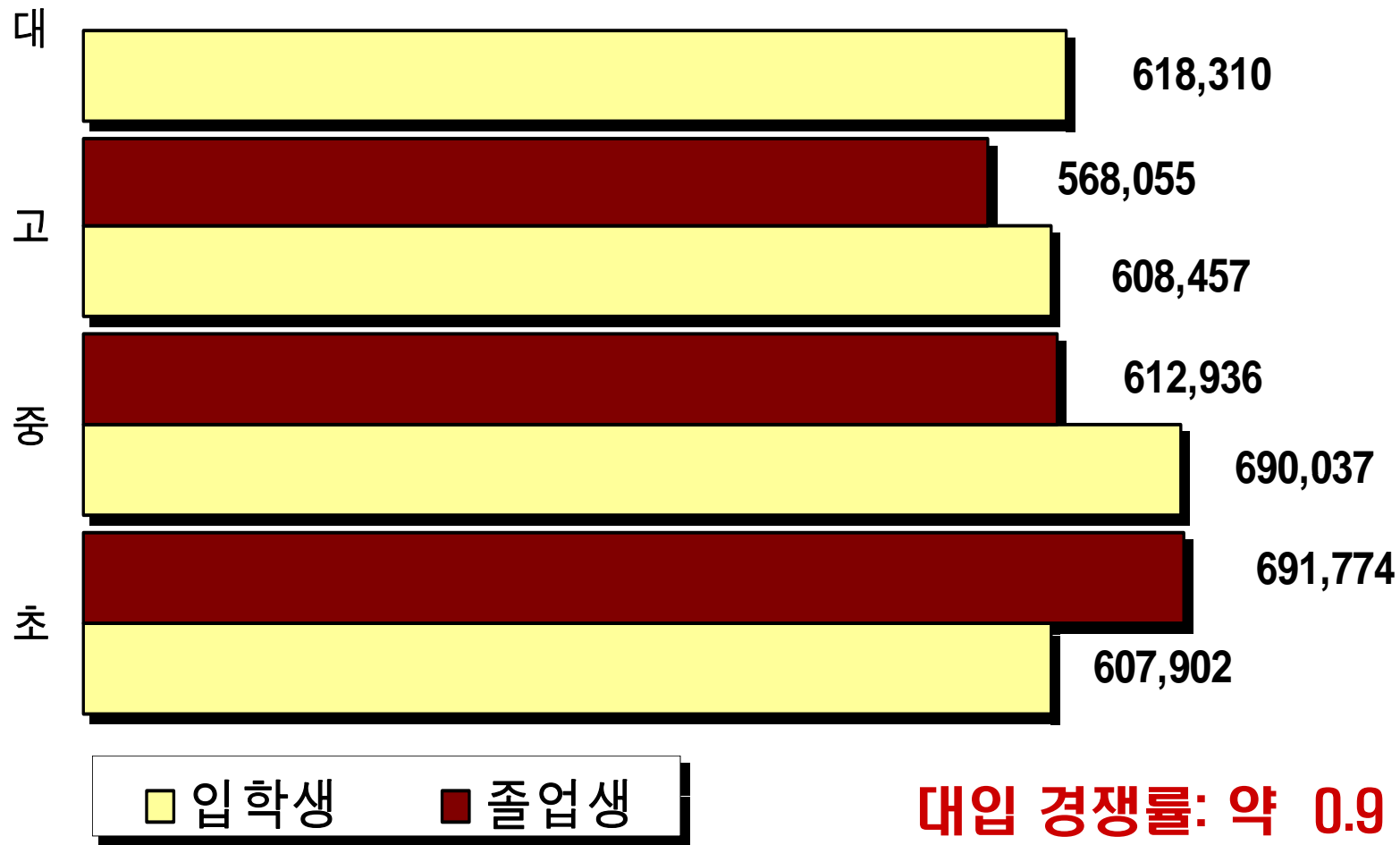
1965년과 2006년

1965년 각급 학교 입학생과 졸업생



중간에 탈락한 아이들은 누구일까요? 어디 갔죠?

2006년 각급 학교 입학생과 졸업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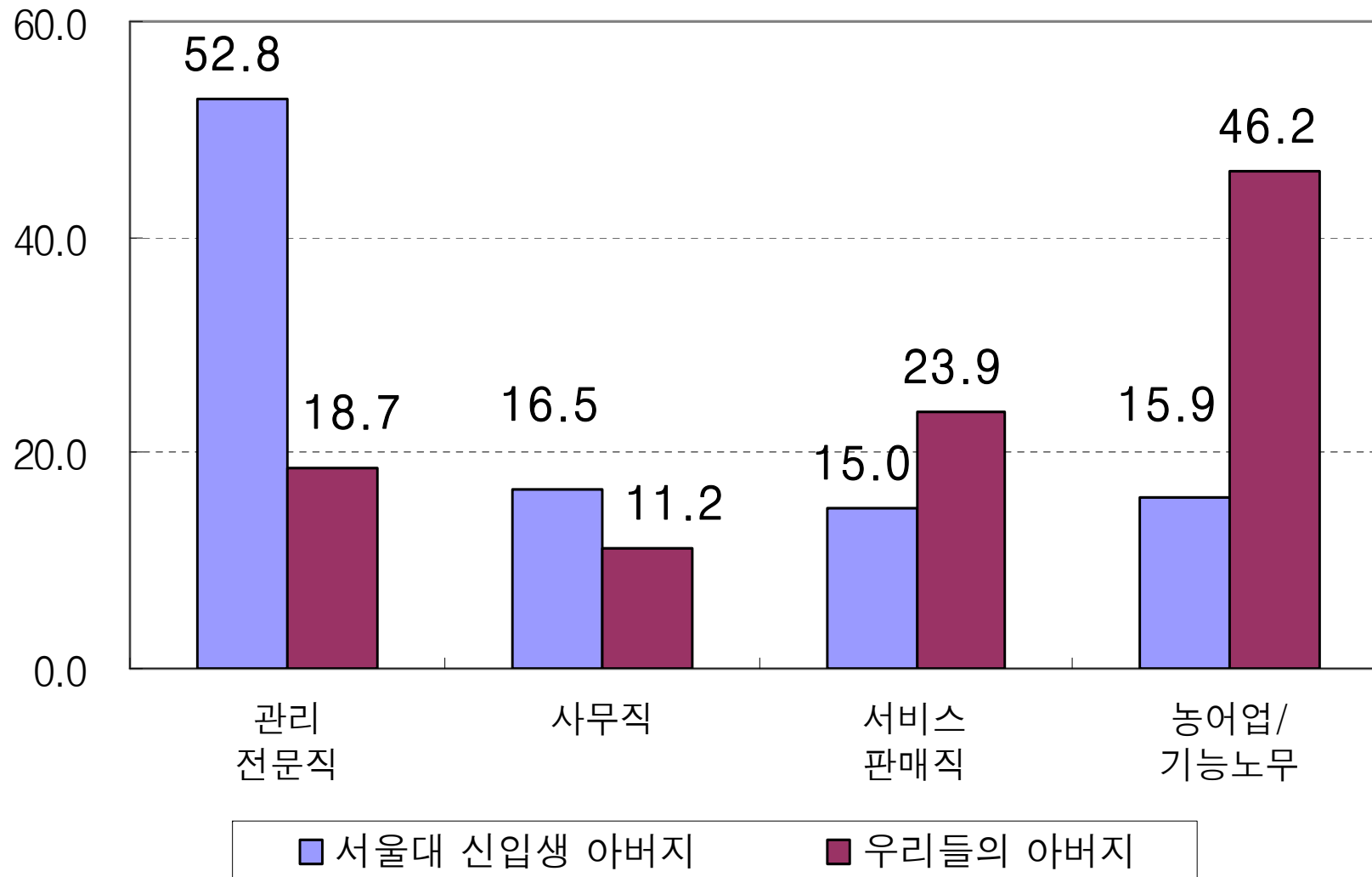
대입 경쟁률: 약 0.9 대 1
서울대 경쟁률: 약 142 대 1 ?

**교육불평등의 형태는
어떻게 달라졌을까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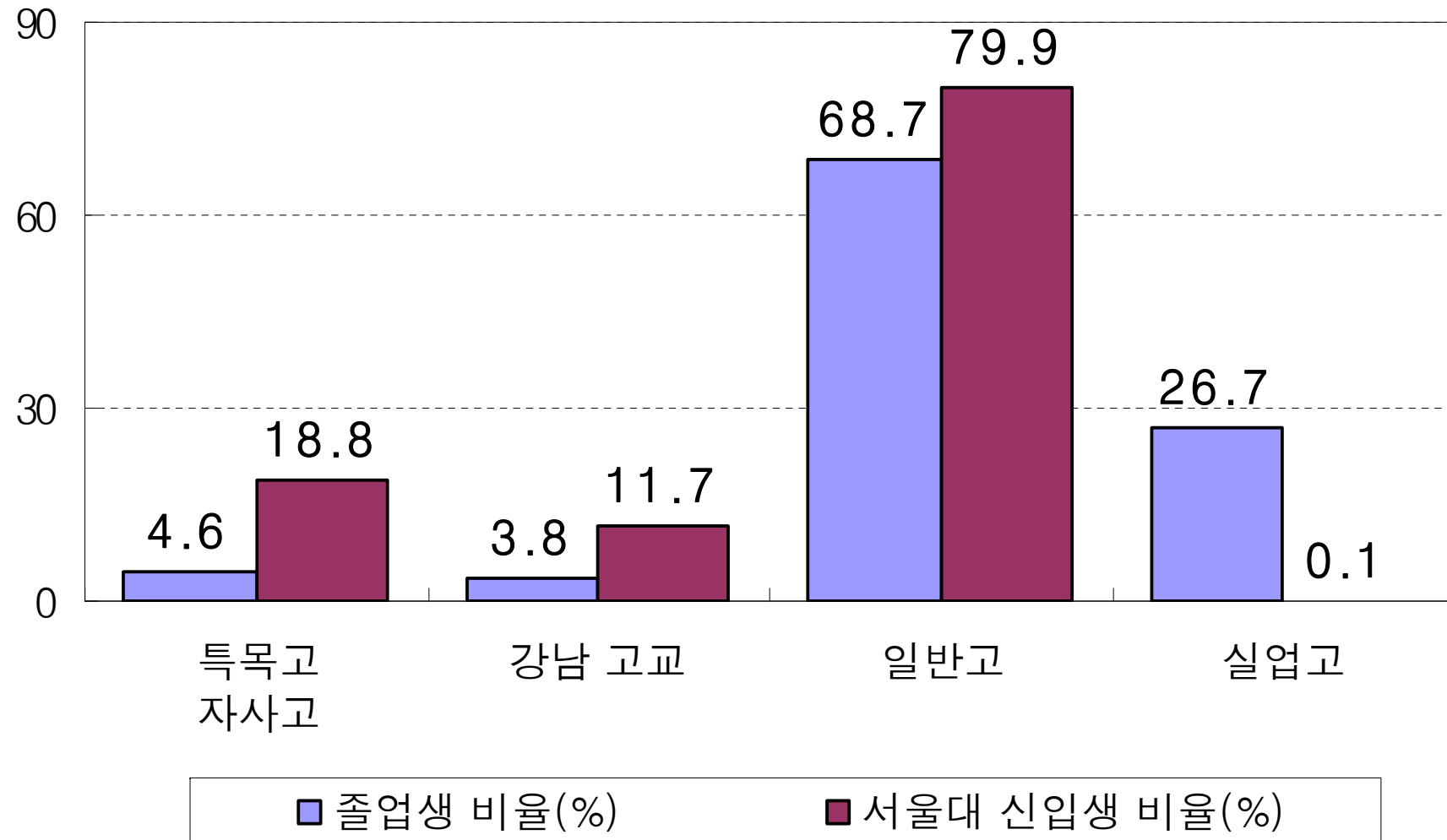


21C, 일류대 가기

2001년 서울대 신입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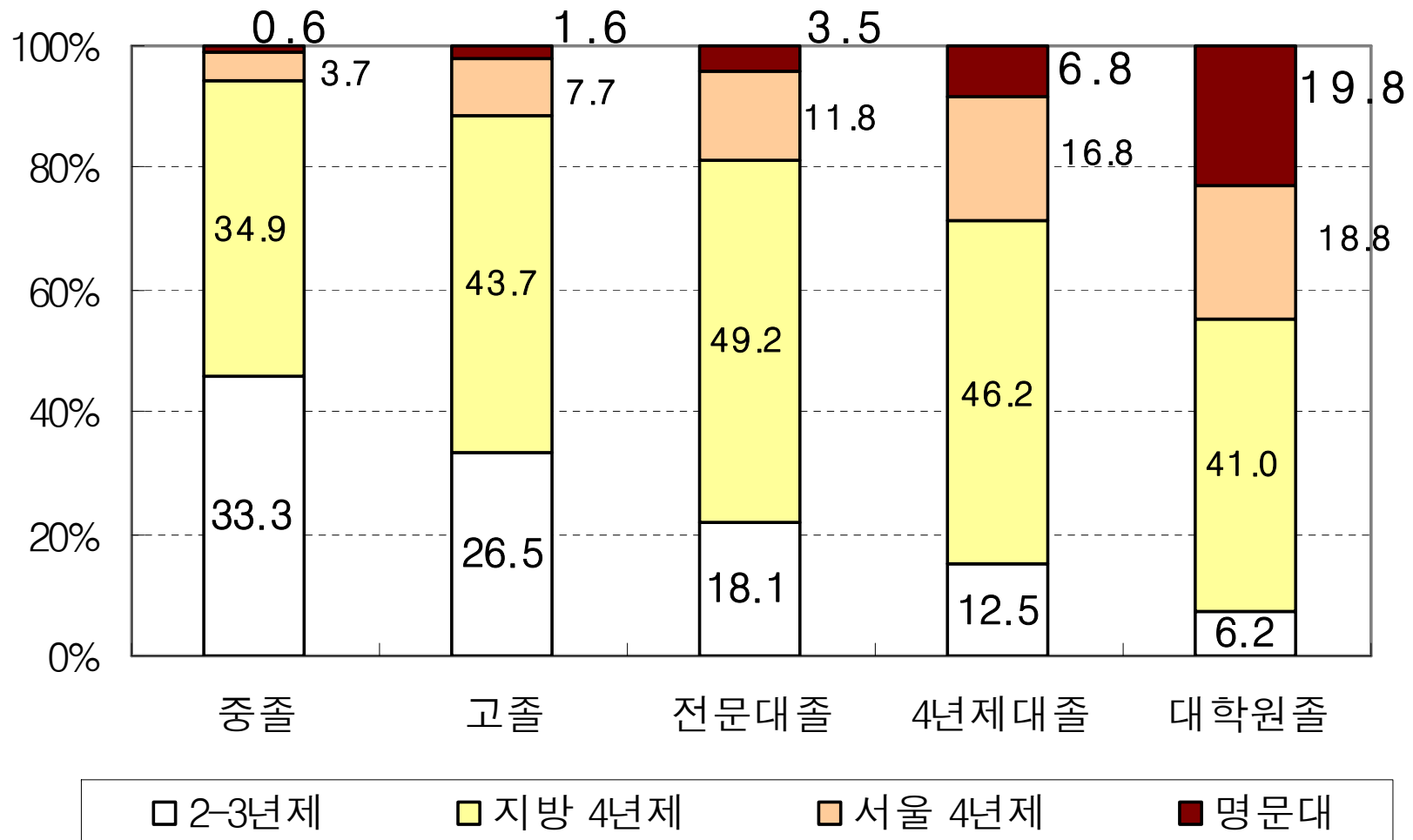
2006년 서울대 신입생



* 2006년 국정감사 자료(최순영의원실 <- 서울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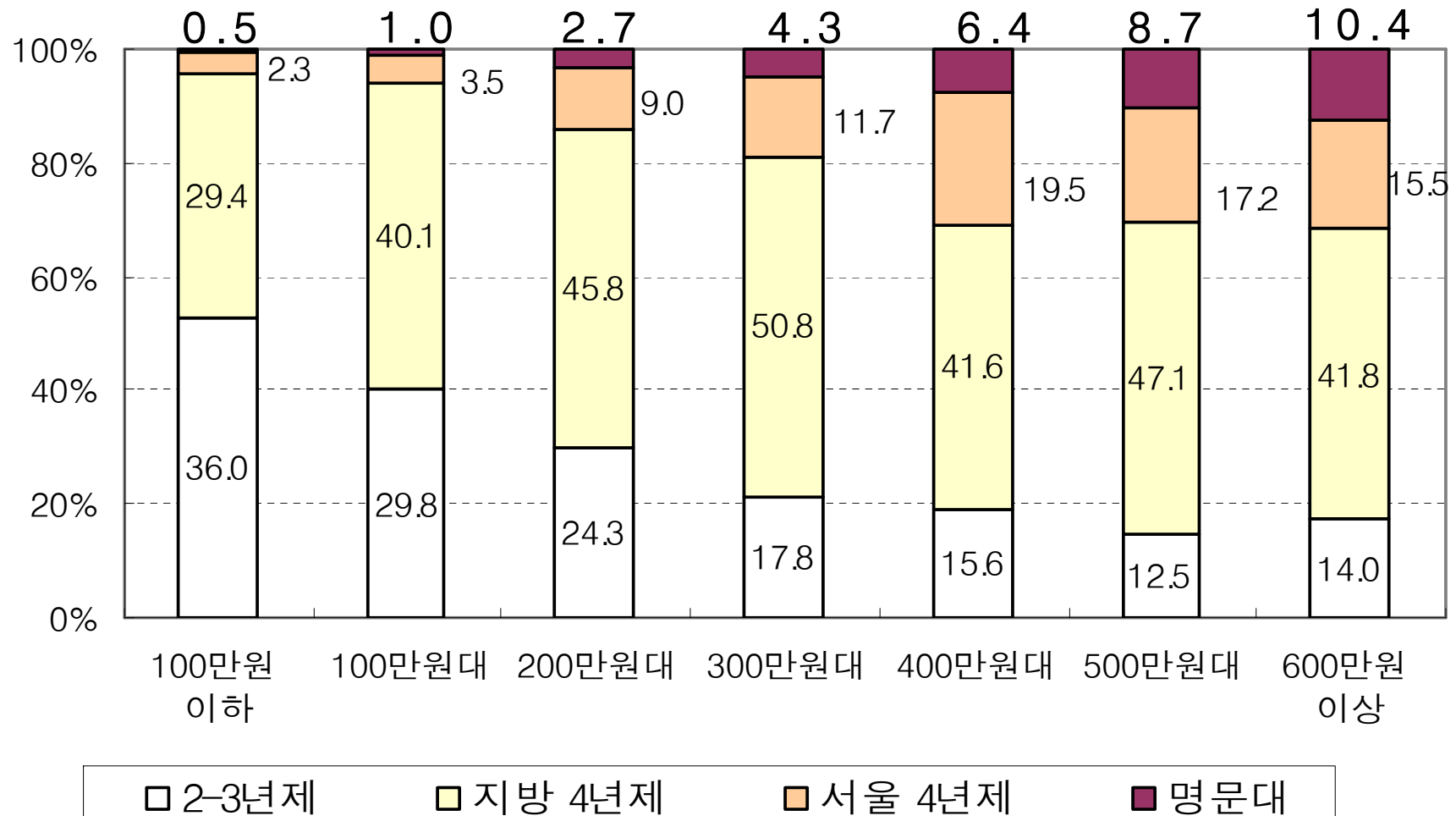
2006년 추적 조사: 명문대, 누가?

아버지 학력에 따라



2006년 추적 조사: 명문대, 누가?

부모 소득수준에 따라



21세기 서울대 등 명문대 가기

아빠 엄마 직업, 아빠 엄마 학력,
한달 수입이 어떻게?

그리고 우선 특목고나 자사고 가라!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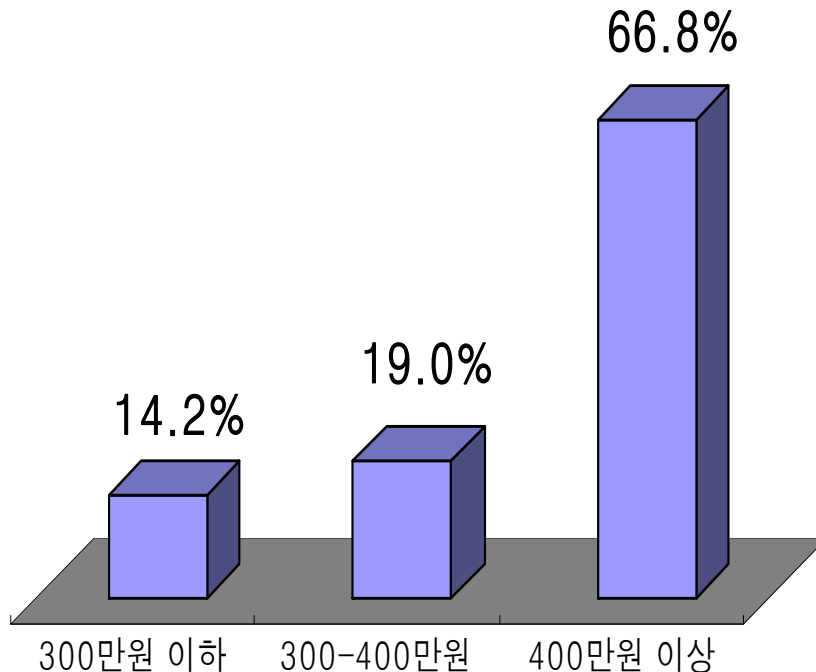
자사고와 특목고는?

2005년 자사고 학부모 월 소득

6개 자사고 학부모 월평균 소득: 537만원

* 2005년 1사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(329만원)의 1.6배

3개 일반 자사고(회사 자사고 이외 민사, 해운대, 상산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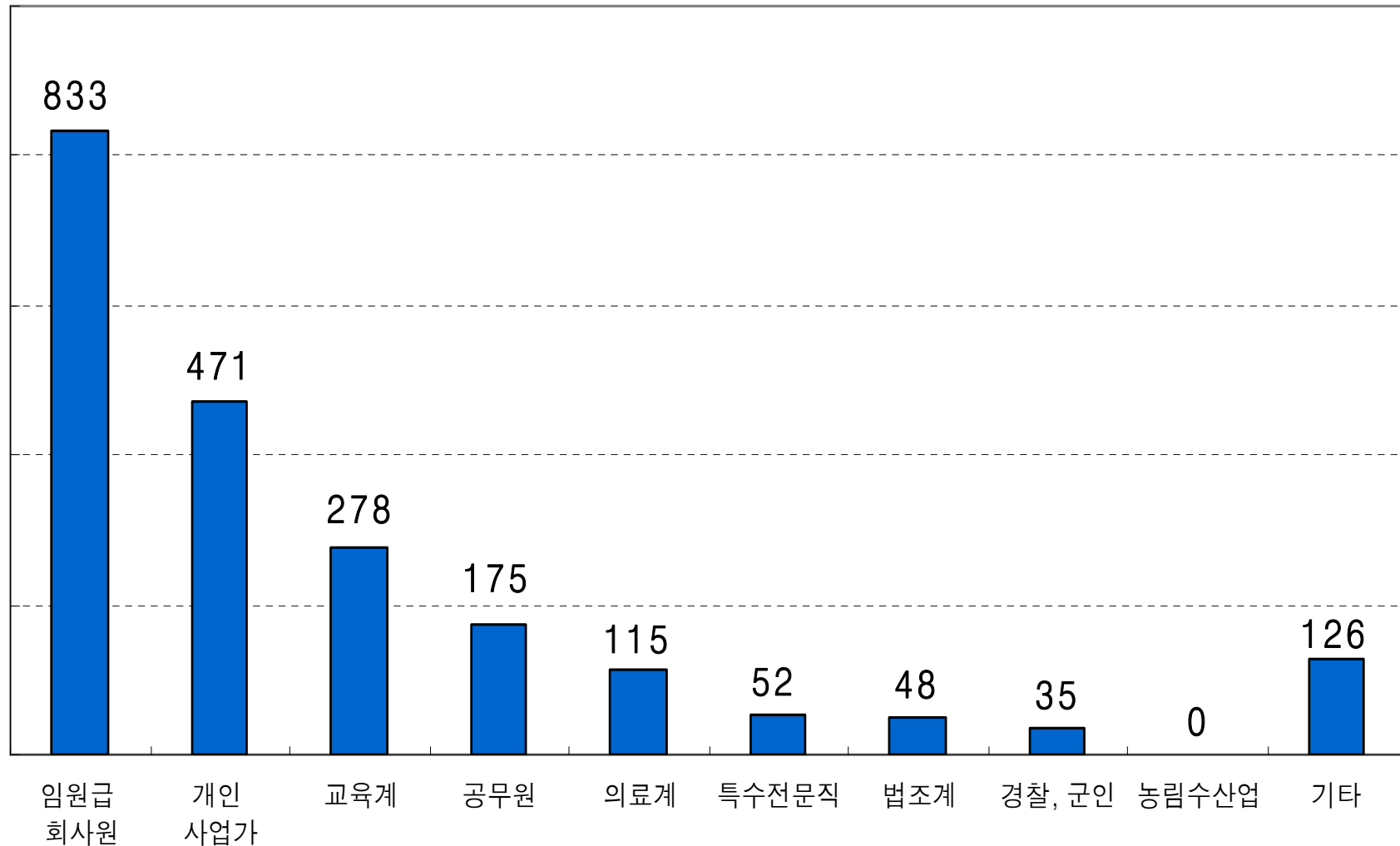


해운대고 평균: 587만원

상산고 평균: 586만원

민사고 평균: 687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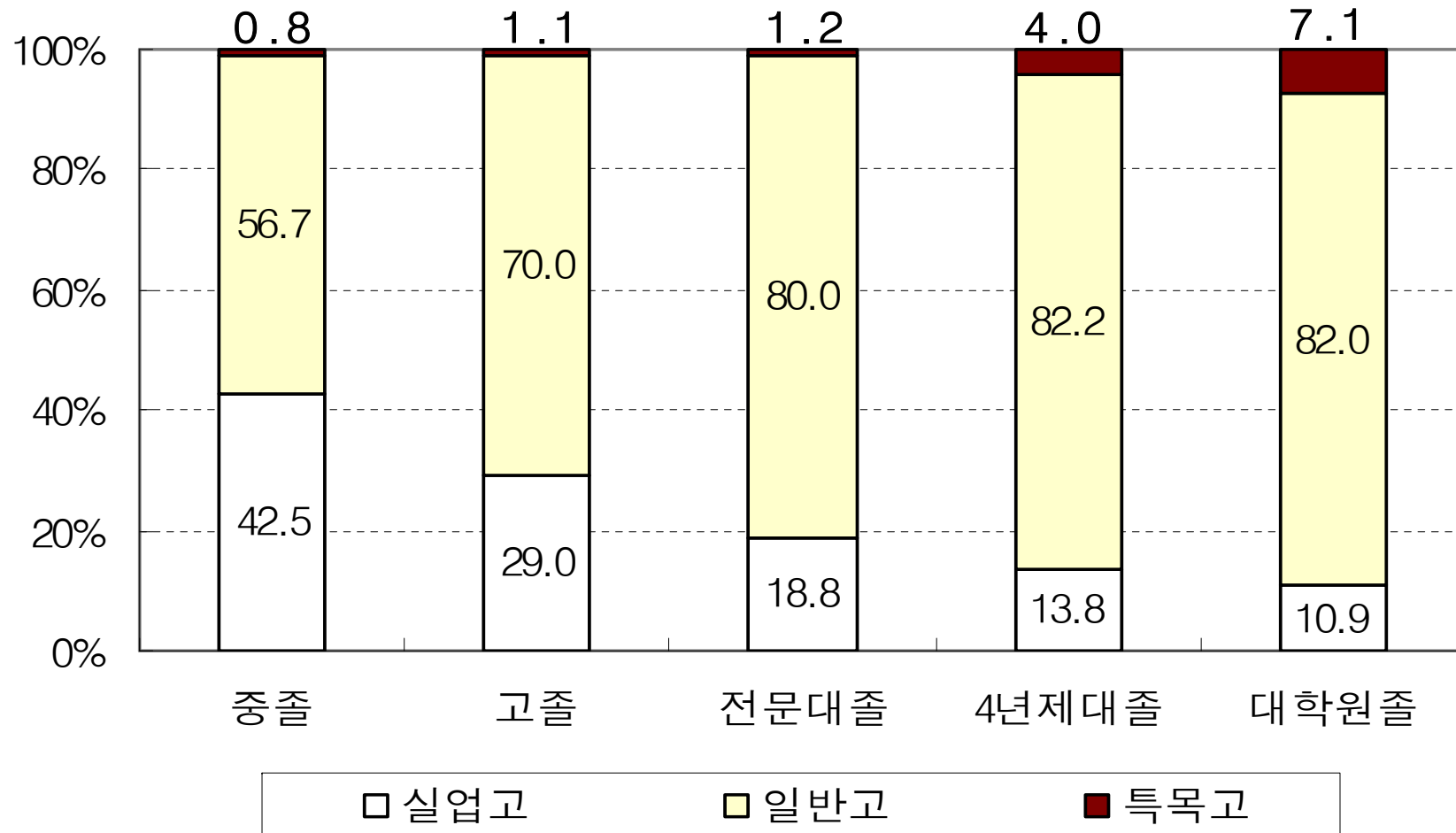
2006년 서울 6개 외고 학부모 직업



* 2006년 국정감사 자료(이경숙 의원실 <- 교육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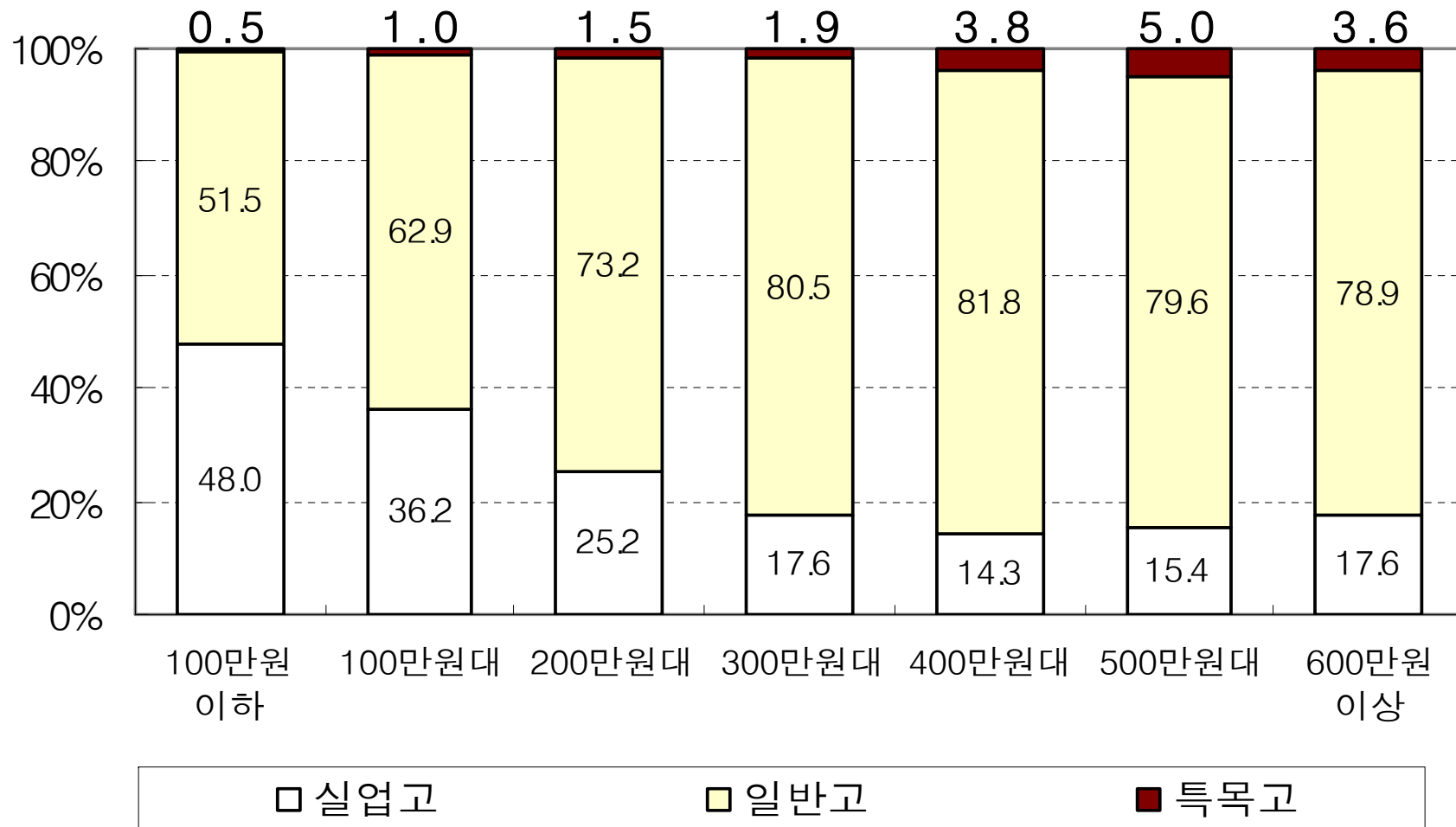
2006년 추적 조사: 특목고, 누가?

아버지 학력에 따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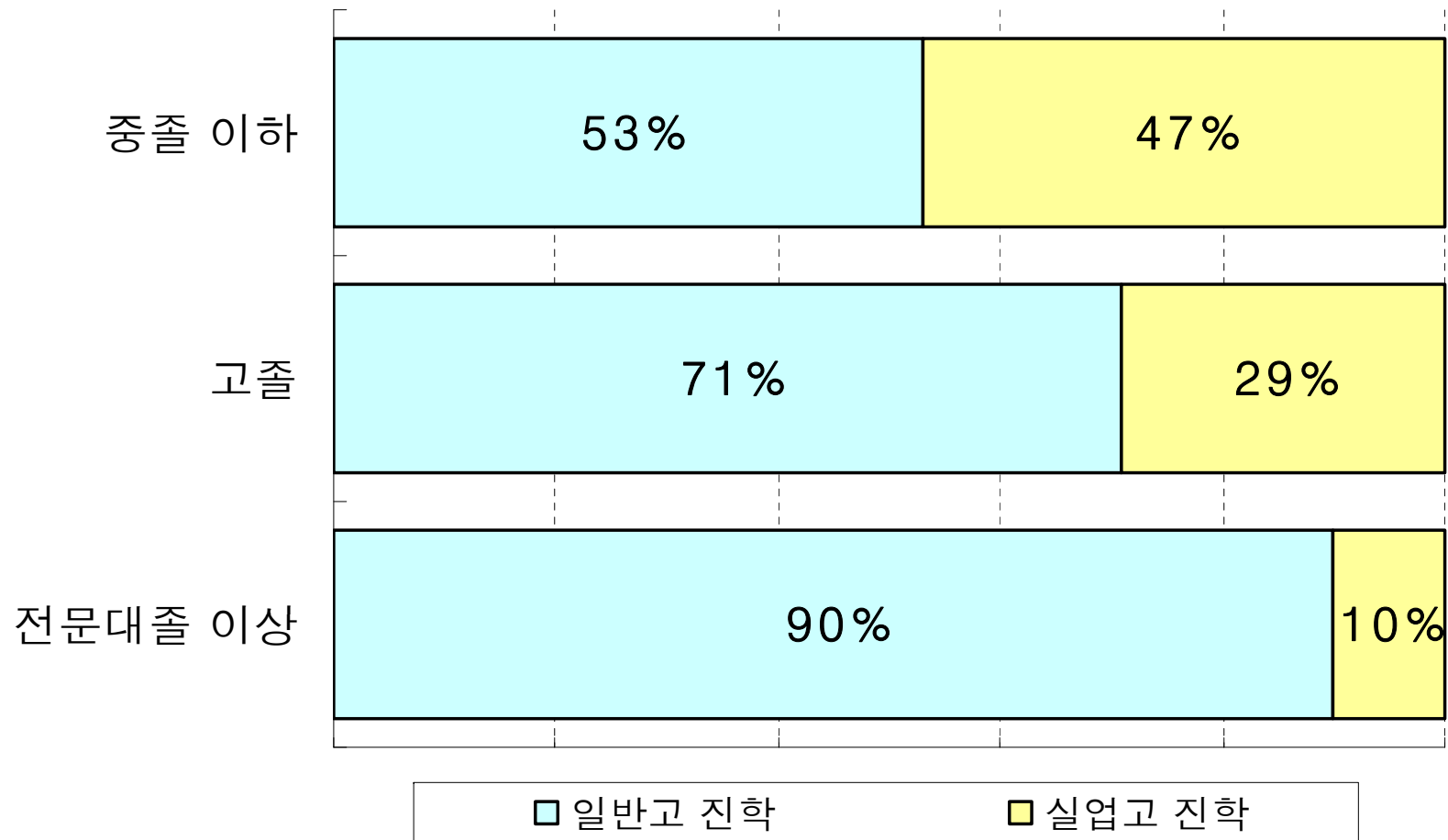
2006년 추적 조사: 특목고, 누가?

부모 소득수준에 따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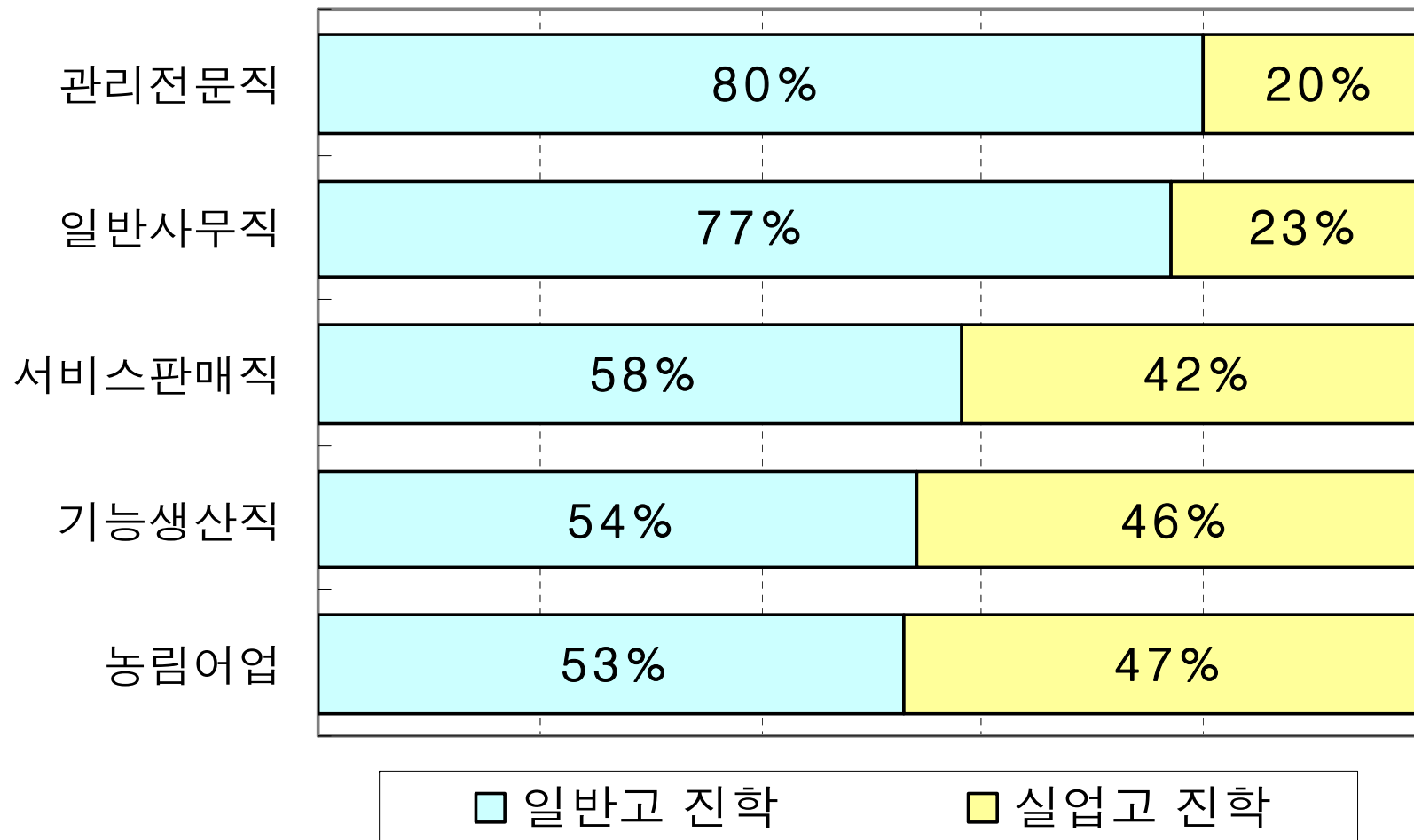
일반고와 실업고 누가 가나?

부(모) 학력에 따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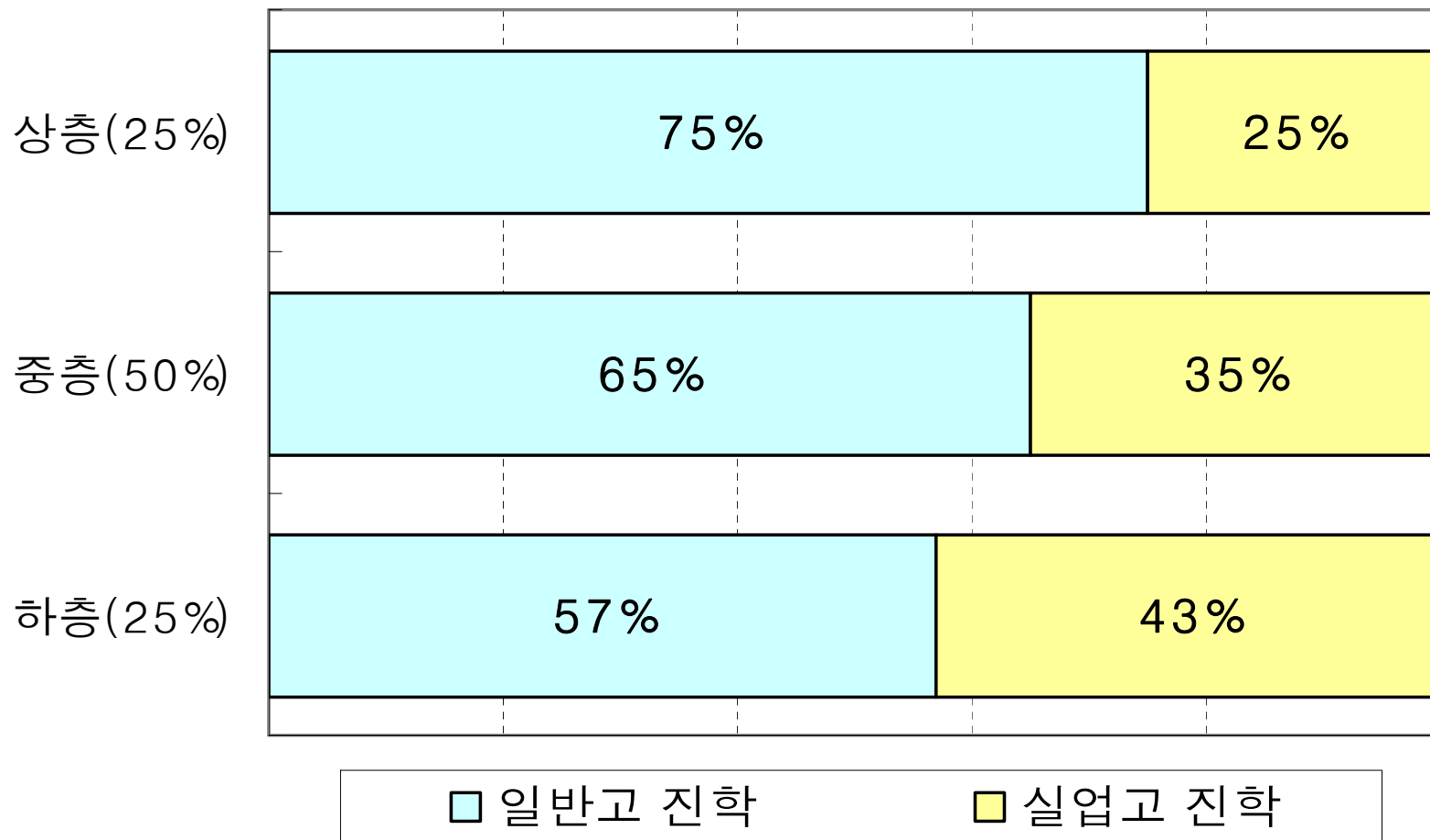
일반고와 실업고 누가 가나?

부(모) 직업에 따라



일반고와 실업고 누가 가나?

부(모) 소득계층에 따라



고등학교부터 갈리는 아이들

아빠 엄마 직업,
아빠 엄마 학력,
한달 수입이 어떻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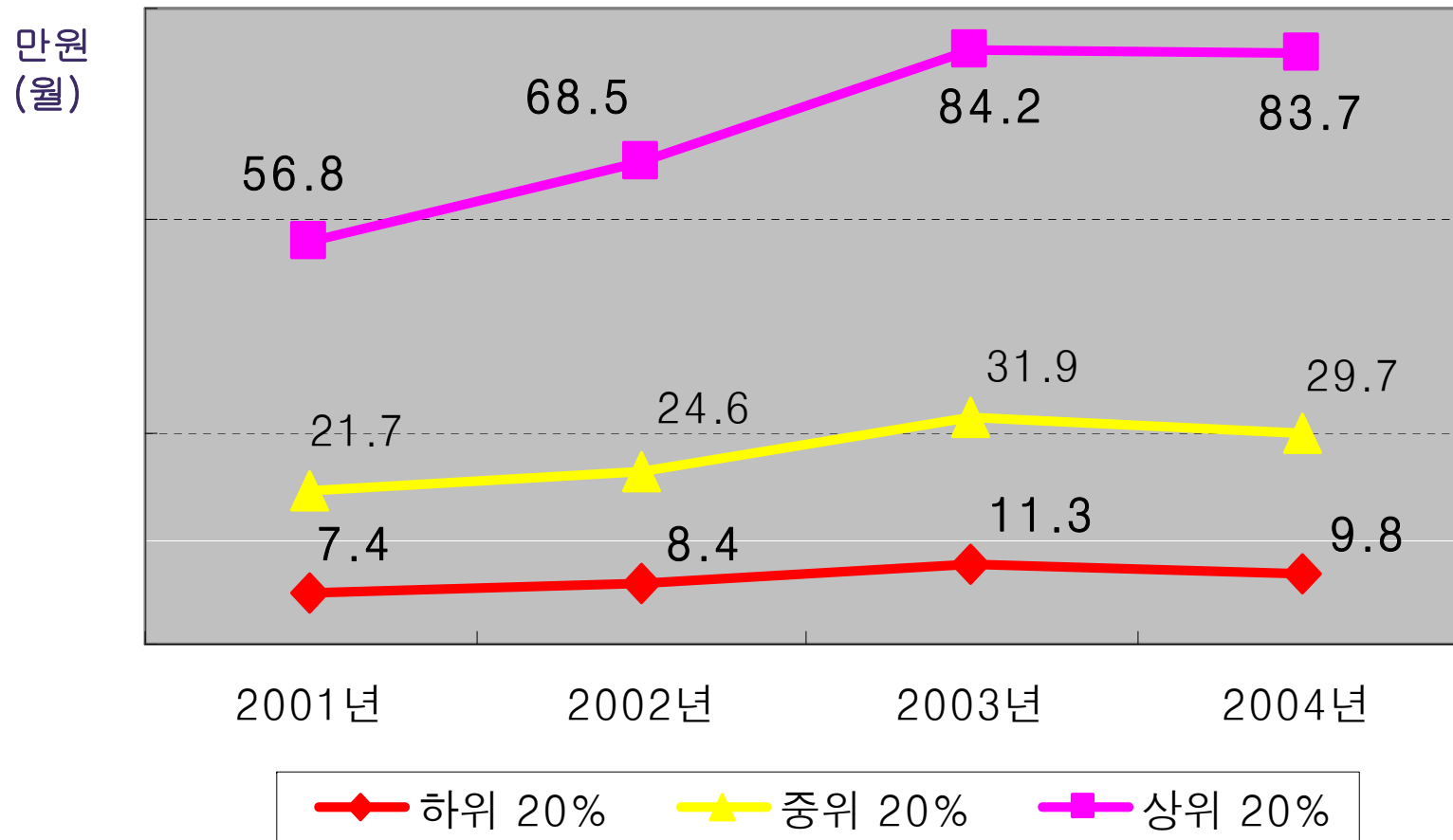
그럼, 고등학교 이전엔?

여보게, 반에서 누가 일등하지?
열반엔 누가 있나~요?



사교육의 차이

상위 20%와 하위 20% 사교육비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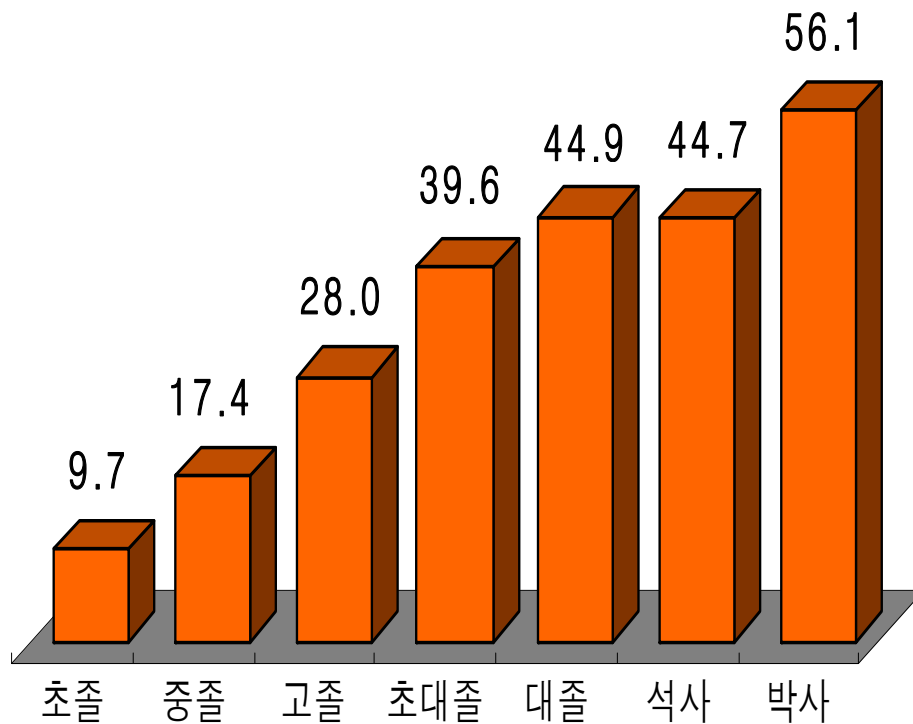


2001년 7.6배가 2004년 8.6배로 격차 벌어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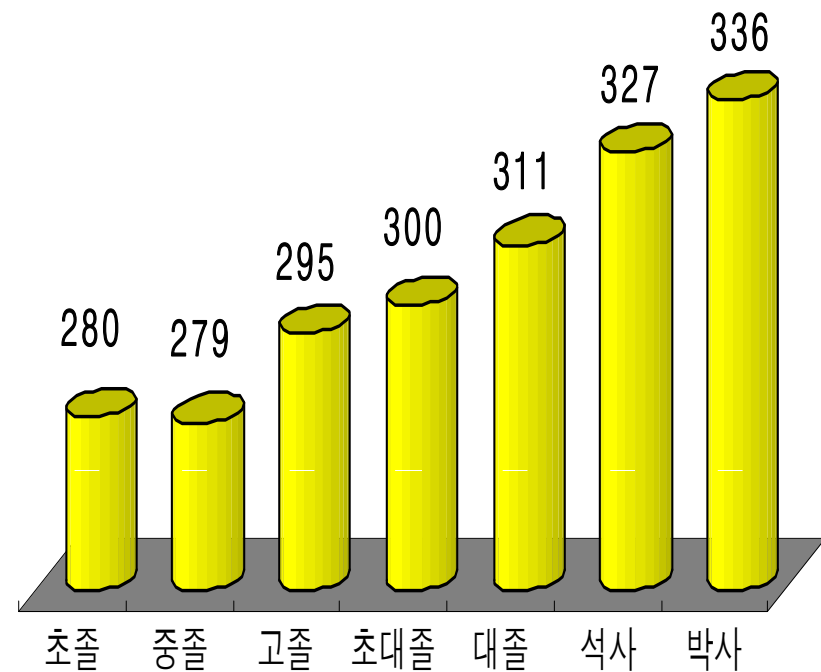
가정배경과 사교육, 그리고 수능점수

아빠 학력에 따라

사교육비(만원, 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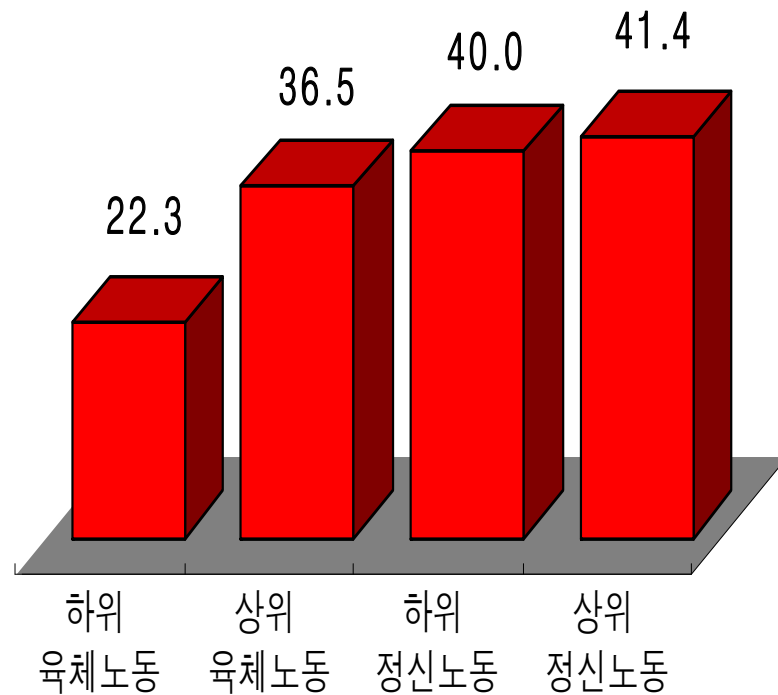
수능점수(3개 영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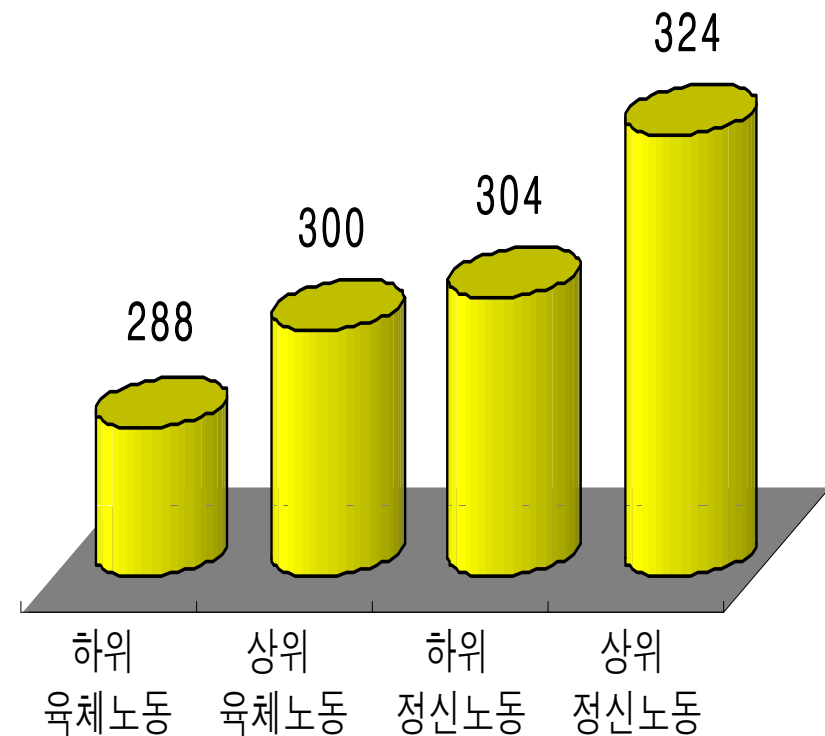
가정배경과 사교육, 그리고 수능점수

아빠 직업에 따라

사교육비(만원, 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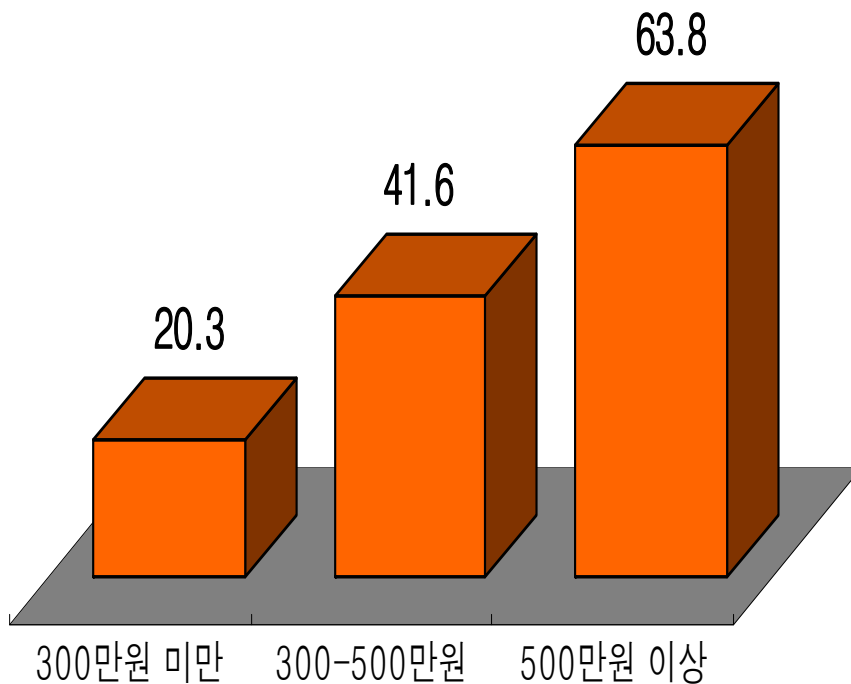
수능점수(3개 영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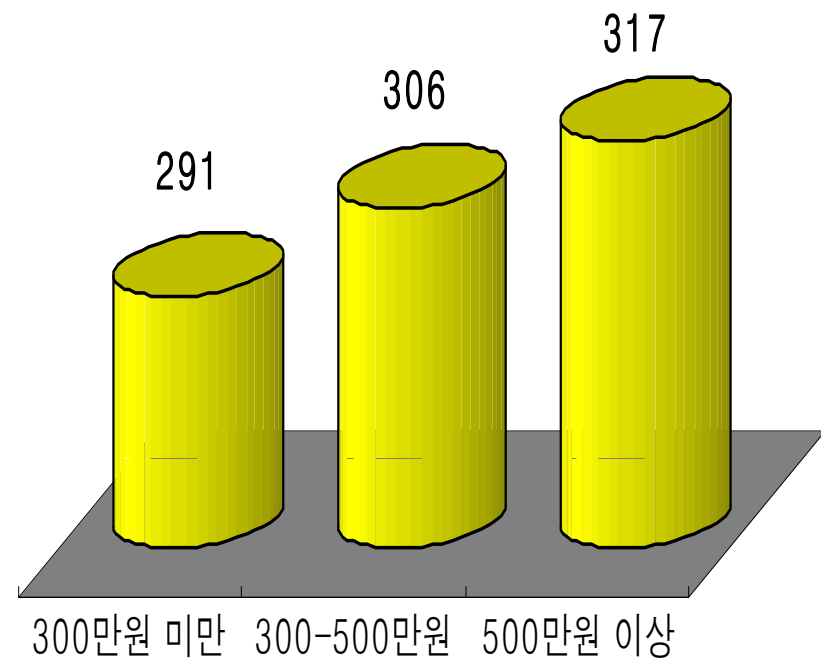
가정배경과 사교육, 그리고 수능점수

가구 소득에 따라

사교육비(만원, 월)



수능점수(3개 영역)



영어 사교육(우린 미쳤어!!)

최 상

어릴 때 외국에 가서 몇 년 산다(조기유학)

상 류

어학연수(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1세계 + 동아시아)

중 상

1:1 원어민 영어과외, 영어 전문학원(ECC, YBM 등)

중 류

한국인 영어과외, 학원 영어 단과반(관찰은 학원)

중 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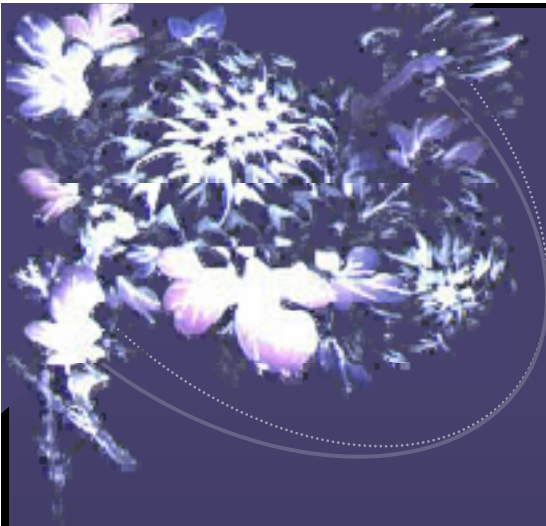
영어방문 학습지(재능, 대교 등), 학원 전과목 종합반

하 류

전과목 동네 보습학원, CD, TAPE, 인터넷사이트

최 하

영포 왕자(영어 포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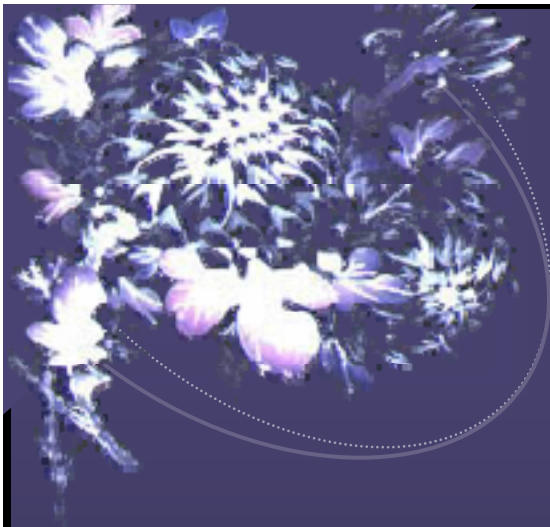


요즘 공부 잘 하는 아이의 일반적인 조건

대졸 이상 엄마 아빠, 전문직 이상 아빠, 돈 많이 버는 아빠,
영어되는 엄마, 집에 있는 엄마, 입시정보에 빠른 엄마,
정보망과 인맥이 있는 엄마,

무턱대고 비싼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
현명한 소비를 하는 엄마,

좋은 동네, 다른 건 몰라도 공부와 대학입시에 관해서만은 대
화가 이루어지는 가정,



요즘 공부 잘 하는 아이의 일반적인 조건

독립적이긴 하나 반항적이지 않은 아이, 자신감있는 아이,
집중력이 뛰어난 아이, 컴퓨터와 TV를 자제할 줄 아는 아이,
전문직 이상을 꿈으로 하는 아이(교사, 간호, 경찰, 어른 말고),
간혹 이기적인 아이, 함께 나누는 것보다 경쟁에서의 승리를 더
좋아하는 아이, 오래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,
면학분위기가 괜찮은 학교, 오래 공부시키는 학교,
교사 말을 잘 듣거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

공부잘하는 아이, 최적의 조합

돈 많이 버는 아빠 + 영어되는 엄마
아빠의 경제력 + 엄마의 정보력

아빠 엄마,
힘 내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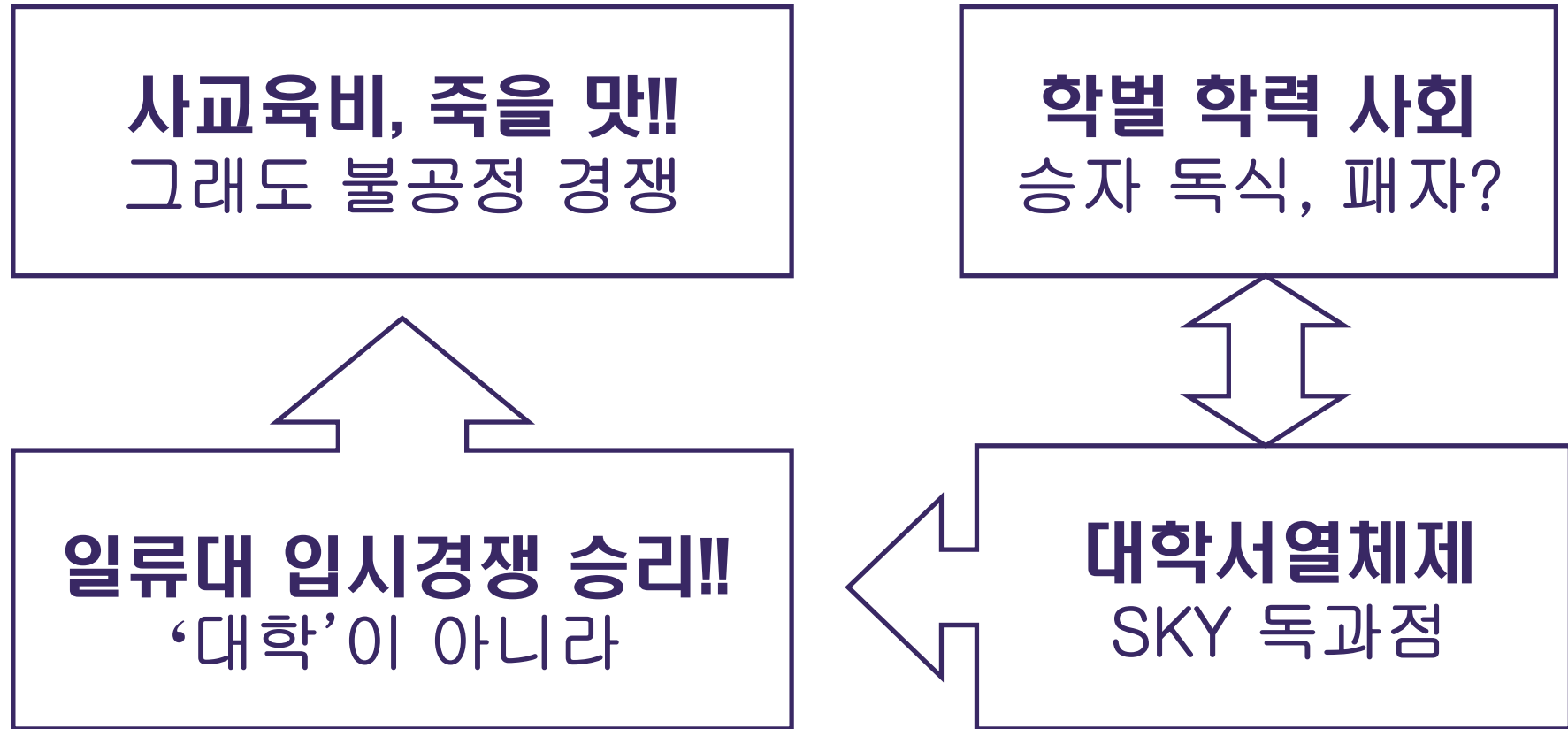
응, 돈 많이 벌게.
넌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

그러지 말고

세상을 바꾸자!!



독과점의 악순환



대학입시를 매개로 한, 공정하지 않은 경기
한국은 신분사회(성골, 진골, 6두품,....)

그래도 경기를 계속 할 것인가?

경기장을 뒤집어엎을 것인가?

학벌 학력 사회(독과점) 해소

학벌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

- 채용, 승진, 임금, 각종 처우에서 학벌 학력 차별 금지

공직자 균형 선발

- 지역, 학벌, 학력 등을 고려 공직자 균형 임용
-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강화
-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, 지역 학벌 균형 인사

민간기업 능력중심 인사관리 권고 및 지원

- 입사원서 학력란, 명문대 졸업자 가산점 폐지 등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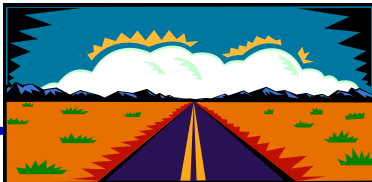
대학평준화

- 일류중, 일류고 학벌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?

일류대 위주 입시(독과점) 해소

병목현상

- 대학가려는 경쟁은 없다: 대학정원 60만, 수험생 65만
- 일류대 가려는 경쟁만 있을 뿐.
- 학생은 일류대 '성골 학벌'을 가지려 하고, 일류대는 공부시키기보다 '학생 싹쓸이'를 하려 하고... 독과점의 욕망이 만나 성골, 진골, 6두품을 만들고.
- 지난 50년간 크게는 16번, 작게는 50번 입시제도를 바꿨으나, 한 번도 해결한 적 없음. 병목을 손대지 않으니



[문제]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결하나?

(1) 길을 넓힌다

(2) 고급차만 지나가게 한다

정답을 아시는 분은 1588-입시그만 으로



일류대 위주 입시(독과점) 해소

앞의 [문제]에서 2번으로 답한 분은

- 한나라당, 열린우리당, 조중동, 명문대 등에 가서 문을 두드리십시오.

[문제] 한국 교육의 역사에서 입시, 사교육비, 학벌 등을 한꺼번에 해결한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. 다음 중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
- (1)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전형
- (2)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
- (3) 1995년 5/31 교육개혁안

[문제] 평준화된 초중고등학교는 국제학력평가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, 서열화(비평준화)된 대학은 딸린답니다. 왜 그럴까요?

일류대 위주 입시 해소: 대학평준화

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

- 최소 OECD 수준(GDP 대비 1.1%) 이상: 현재의 2배.
- 국공사립대 고른 지원: 서울대 위주 지원 탈피
- 대학간 여건 및 질의 격차 해소: 상향 균등화

대학평준화

- 계열별 전국단위 통합 전형
- 학점교류 확대, 전학 및 전과 허용
- 엄격한 학사 관리로 졸업자격 부여
- 공동학위 수여

불공정 경쟁 시정

- 사회통합전형: 저소득층, 장애인, 농산어촌, 다문화가정

초중고 단계 공정성 제고

[문제] 100m 경주를 하는데, 한 아이는 출발선에 서있고, 한 아이는 50m 앞에 있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

- (1) 출발선에 있는 아이를 50m 앞으로 데려온다.
- (2) 그냥 둔 채 출발 신호를 한다.

무상교육 확대

- 최소 '유아부터 중학교까지'는 완전 무상교육
- 농산어촌/ 저소득층/ 실업고/ 장애인 등은 고교까지
- 하위 계층(하위 10%) 대학 무상교육

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

- 열악한 지역부터 '작은 학교' : 학급당 학생수 감축
-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
-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

[보론] 사교육비 경감

사교육 원인 제거

- 사교육의 원인은 공교육 부실인가? 입시경쟁인가?
- 입시 해소(대학평준화)로 사교육 원인 제거
- 학벌 학력사회 해소로 사교육 원인 제거

사교육 적정 규제

- 학원 수강료 상한제 관리 감독 강화
- 상한선 초과 수강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
- 과도한 선행학습 자제 권고
- 온라인 사교육, 학원법 대상에 포함(현재는 평생교육법)
- 오후 10시 이후 학원영업 그만(10~2시는 성장수면시간)



지금은 21세기

신분사회, 불공정경쟁, 독과점

원?

고졸, 대졸, 어느 대학 출신? 그래서?!

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 30년!

끓고 끓은 상처는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로...

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